

## 언론의 생태계 보도 사례 분석

### - 황새, 황소개구리, 반달곰

조흥섭

(한겨레 신문사, 환경전문기자)

언론의 자연생태계 보도는 90년대 이후 급증 추세를 보이고 있다. 그 내용도 특이하거나 신기한 '스타' 동식물의 보도에서부터 생태계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는 쪽으로 발전하고 있다.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 생태계 보도의 효시라고 할 수 있는 '음성 황새'에 관한 보도부터 가장 많은 기사를 생산한 자연생태계 이슈라고 할 '황소개구리' 보도, 그리고 83년 첫 보도 이후 오늘날까지 언론보도의 큰 관심거리가 되고 있는 '반달곰' 보도 사례를 분석했다. 이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 언론의 생태계 보도는 양과 질에서 큰 성장을 보였음을 알 수 있다. 또 권위주의 정권 아래에서 생태계 보도가 실질적인 내용의 충실성이 떨어져 정치적으로 이용됐을지 모른다는 추정을 덧붙임했다. 언론의 생태계 보도가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언론계와 학계의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도 제기됐다.